

離任辭

서울대학교 공업화학과 安泰琬



辛未年 새해를 맞이하여 會員 여러분의 家庭에 萬福이 깃드시기를 眞心으로 祝願합니다. 會員 여러분의 聲援에 힘입어 本人이 7代 會長職을 맡아 學會를 運營한지도 어느덧 2年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學會發展을 위하여 物心兩面으로 많은 指導와 協助를 아끼지 않으신 任員 및 會員 여러분에게 感謝드리며, 아울러 計劃된 事業을 大過없이 遂行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年間 學會의 일들을 回顧해 보면 第一 먼저 '89年 6月에 開催된 “機能性 高分子의 分子設計”에 관한 IUPAC 國際 심포지움이 생각납니다.

本 심포지움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美國, 일본, 蘇聯 등 世界 24個國에서 732名이 參加하여 總 247篇의 研究論文을 發表하여 大盛況을 이루었으며, 大會의 參加規模나 發表 論文의 內容, 準備, 運營面에서 成功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基盤이 되어 蘇聯과 競합이 되었던 IUPAC “MACRO 96”의 開催地가 지난해 몬트리올 會議에서 우리나라 “서울”로 確定되었으니, 이는 우리 學會의 世界的 位相이 더욱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1996年은 우리 學會의 創立 20周年이 되는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층 뜻깊은 行事가 될 것으로 期待됩니다.

學會誌 亦是 “高分子科學과 技術”誌를 創刊함으로써 從前 年 8回 發刊하던 것을 年 12回로 增刊하게 되어 從前의 “폴리머”는 學術論文誌로 發展시키고 技術分野의 總說과 學會消息 等은 새로 創刊된 “高分子科學과 技術”誌로 獨立시킬수가 있었습니다.

이 技術誌의 創刊으로 高分子技術의 專門化와 高度化를 꾀하게는 되었으나, 처음 만든 專門誌로서 많은 努力에 비해 內容과 規模面에서 多少 不足한 點이 없지 않으나, 앞으로 會員 여러분의 協助로 많은 發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學會에서 每年 授與하는 學術賞 및 技術賞의 基金은 既 造成된 積立金의 利益剩餘金에서 支給되었는데, 이 中 學術賞의 基金은 造成되어 있었으나 技術賞의 基金이 確保되지 못하여 隘路를 느껴왔습니다. 多幸스럽게도 이번 學期中에 千萬원을 募金하여 技術賞의 基金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學術賞 및 技術賞의 基金은 完全히 確保되었습니다. 以外の 基金으로는 IUPAC 總會後 剩餘金으로 4千餘萬원을 積立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本人의 任期中 아쉬웠던 점은 學會에서 開催하는 各種 세미나였습니다. 이 세미나야말로 產·學 協同의 場이 되어 高分子工業의 新技術에 관한 充分한 討論과 情報交換의 機會가 되었어야 했는데도 不拘하고 自發的이라기보다 幹事陣들의 많은 努力으로 힘겹게 運營되었습니다. 이것은 產·學間의 相互 認識不足과 見解 差異로 생각되며 앞으로 解決해야 할 宿題로 여겨집니다.

以外에도 아쉬웠던 點들이 많았습니다만 有能하신 後任 趙義煥 會長님을 비롯하여 任員 여러분이 잘 解決하여 우리 學會가 더욱 發展될 것으로 믿으며, 어려운 與件下에서도 學會發展을 위하여 獻身的인 努力을 아끼지 않으신 李厚成 專務理事와 幹事陣들에게 다시 한번 感謝드립니다.